

'승객 반토막' 전남 버스업계 '운행중단' 위기...지원 호소

올 2월까지 1년간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121억원 감소 버스업계 "지원 안 되면 취약노선 운행 중단 불가피해" "타 광역단체 수십억 지원했지만 전남도는 지원금 없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대중교통 이용·외출 자제 등의 정부 방역조치 장기화로 승객이 반토막 난 전남 버스업계가 적자 누적으로 '운행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6일 지난해 2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이용 승객이 절반이하로 급감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전체 버스업계가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합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자 감소를 위해 당장

'취약노선'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할 처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간 전남 시외· 시내·농어촌버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1억원이 감소(-44.8%)했다. 이 중 시외버스는 872억원이 감소(-56.3%)해 전체 감소 금액의 78%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인해 시외버스

매출액은 12월에는 65%, 금년 1월에는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려운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선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운행 중단 사태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전남 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공공성 유지를 위해 자구책으로 30~40% 감축운행, 운수종사원의 유·무급 휴직 실시 등을 통해 운송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한계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축운행에 따른 운수종사원들의 실질 인건비가 30% 이상 감소됐지만 누적 적자로 이마저도 지금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계는 추가적인 인적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사 갈등 심화로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의 운행중단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 측면에서 유발된 사회적 손실을 버스업계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전국 각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운송업체에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104억원, 충청남도 120억 5000만원, 강원도 70억원, 충청북도 90억원, 전라북도 26억5000만원, 경상남도 25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남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취약노선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도민들의 발이 되는 노선버스 운행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의 '취약노선 지원' 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며 "전남도도 타 광역자치단체 처럼 운수 종사원들의 인건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유나가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6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은 15만6000명으로 서울시 목표인원 대비 2.6% 정도가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텃세해' 합숙 첫날 동료 찌른 외국인 노동자 구속

외국인 노동자 숙소서 같은 국적 남성의 배 흉기로 찌른 혐의 영광경찰서는 술자리 도중 동료를 흉기로 찌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영광군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 B씨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함께 술자리 중이던 B씨를 향해 "텃세를 부린"고 거세게 항의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자리를 얻은 A씨는 숙소에서 입소한 당일 처음 만난 B씨와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서희권기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두 얼굴...반려견 죽자 "좋은곳 가"

김태현으로 추정...SNS 계정 반려견 사진 세상 떠난 반려견 그리워하는 취지 게시물 피해자 알게된 통로로 알려진 게임 '좋아요'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태현(24)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이 발견됐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태현은 '태현'이라는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정의 소개란을 보면 계정 주인은 자신이 1996년생 싱글 남성이며 서울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표시해 놓았다. 또 김태현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라 근처 중학교를 2012년에 졸업했다는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SNS에는 김태현의 온라인 게임 닉네임 'OOO'을 언급하며 다른 네티즌에게 "친추(친구추가) 보내주세요"라고 보낸 댓글도 있었다. 피해자 중 큰딸 A씨를 알게된 통로로 전해진 온라인 게임의 관련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며 구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자신이 평소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뿐 아니라 인천, 성남, 대전 등 다른 지역의 놀거리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들을 구독하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명이나 죽인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의 모습이라고는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상을 뜬 반려견을 그리워하는 게시물이다. 그는 '11월7일'이라고 날짜가 돼 있는 SNS 스토리에 반려견 사진 5장을 게시하며 "2019. 8.13 화요일 20:00. 내가 널(반려견) 데려오고 이름도 지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널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끝내 못 지켰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라고 적었다. 김태현은 지난 5일 열린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됐다. 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김태현이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해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를 모두 살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 리프트 서비스 기사인 척 피해자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 곧이어 귀가한 A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술,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김태현이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A씨를 몰래 따라다녔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확보해 스토킹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